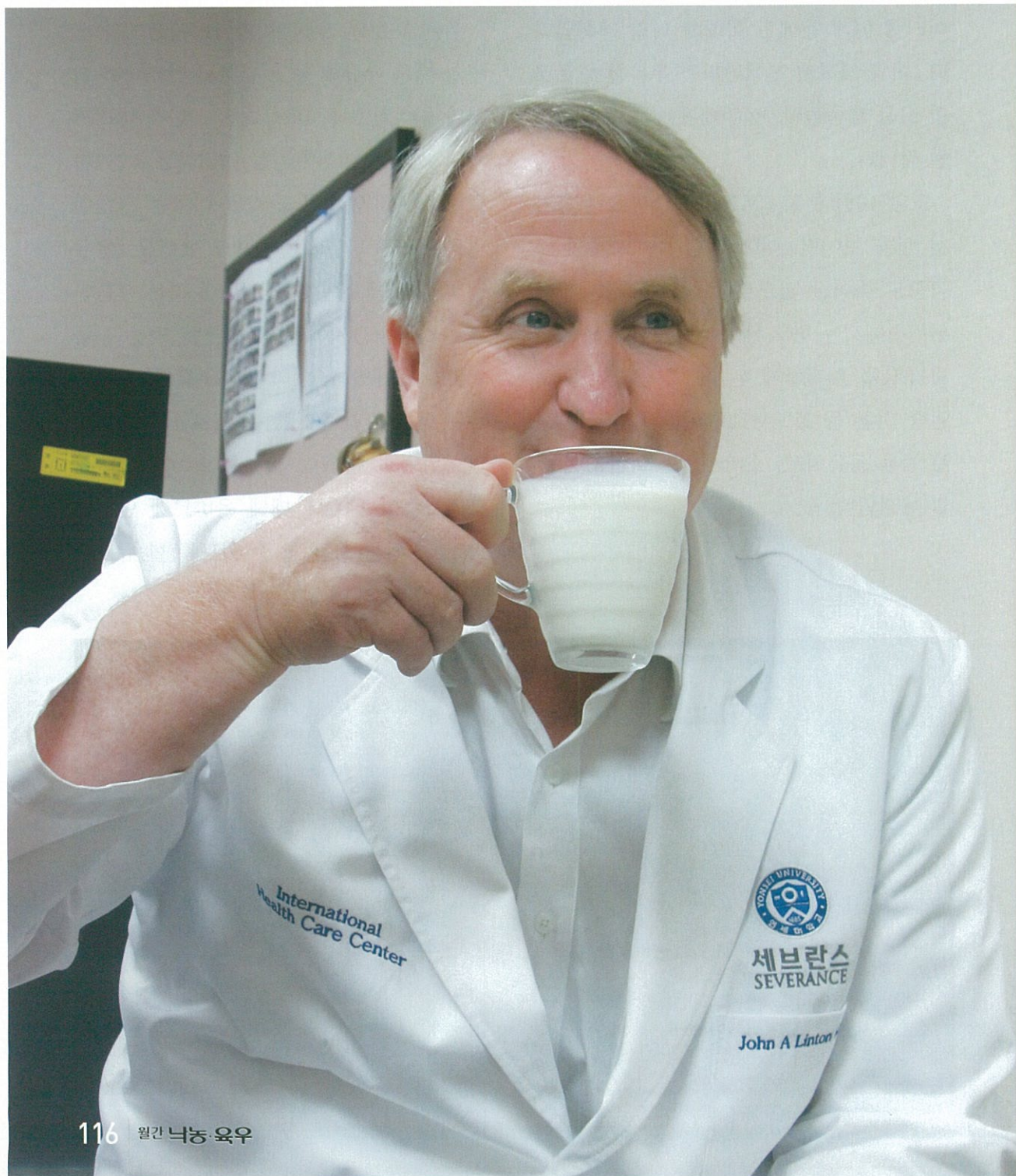


“6천명 낙농가들도 전부 애국자입니다”

K·MILK 홍보대사 인요한 박사(연세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인터뷰



“내가 모 방송사 사장에게 편지를 쓰려고 해요. 우유에 대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했거든? 방송도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K·MILK 홍보대사 인요한 박사(연세대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미국 이름 존 린튼)의 화법은 매우 직설적이다. ‘그릇된 것은 그릇되고, 옳은 것은 옳은 거고, 나쁜 사람은 처벌받아야 하며 선량한 사람은 풀려나야 한다’는 게 그의 일관된 논리다. 최근 모 방송사에서 우유에 대한 악의적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내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는 인요한 박사는 과학적 근거 없이 안티 우유론을 제기한 데 대해 추궁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한다. 아무래도 협회 ‘K·MILK인증사업’은 아주 든든한 우군을 만났다.

‘우유는 가정이다’를 캐치프레이즈로 삼고 싶어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벽안(碧眼)의 한국인’ 인요한 박사. 현재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국내외 외국인 환자 7만여 명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그가 ‘K·MILK인증사업’ 홍보대사직을 흔쾌히 수락했다. 인요한 박



사는 앞으로 ‘우유는 가정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활동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 외할머니가 101세까지 사셨는데 매일 우유를 한 잔씩 드셨어요. 우유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모두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유머러스하고 항상 미소가 얼굴 가득한 인요한 박사이지만 안티우유론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다.

“우유에 포화지방이 많아 동맥경화 환자는 우유를 마시면 안 된다는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학의 입장에서 보



면 몸에 최고로 좋다는 것도 부작용이 올 수 있고 몸에 해로울 수 있어요. 정도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우리의 뇌가 대부분 지방으로 이뤄져 있고 생식호르몬도 지방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럴 거면 계란도, 오징어도, 새우도 아무것도 먹을 게 없지요. 콜레스테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저지방 우유를 마시면 돼요.”

그는 동맥경화가 심한 사람이 하루에 우유를 몇 리터씩 마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유 몇 잔이 건강에 해를 준다는 것은 비과학적인 이야기라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추궁을 해서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밝히겠다고 했다.

인요한 박사는 ‘우유’ 하면 ‘칼슘’이 떠오를 정도로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식품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어린이들에게 매우 필요한 식품이라고 강조했다. 과학적으로 0~5세 사이의 영유아들이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받지 못하면 평생 건강을 회복할 수 없는데, 우유에는 필요한 아미노산들이 대부분 함유돼 있고 비타민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어린이 건강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인 소장은 “소외된 계층 아이들이나 결식아동들의 경우 지능 발달이 저해되는 것을 막고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우유공급”이라며, 굶주리고 있는 북한 아이들에게 우유가 필요한 것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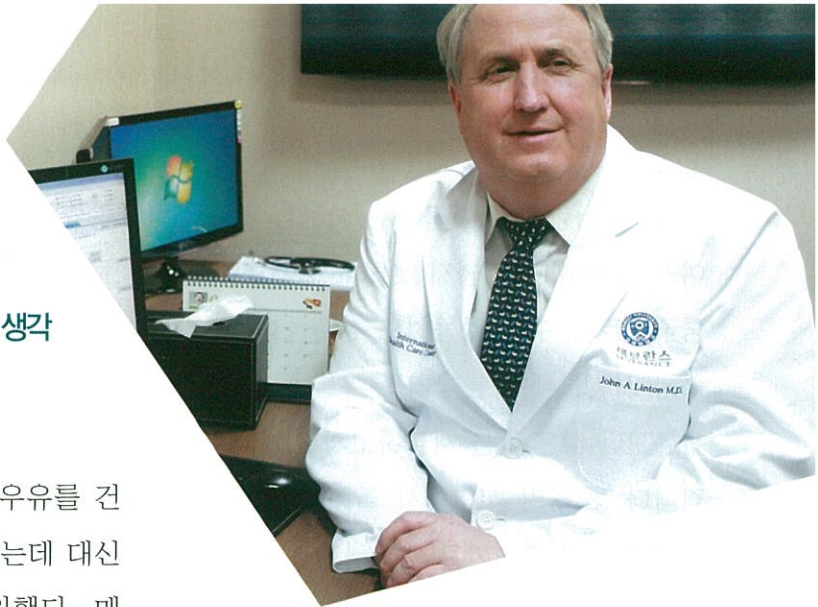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 수련의 시절, 삼각형 봉지우유 생각 간절

인터뷰 도중 인요한 박사에게 우유를 건네자 “고마워요. 아침 안 먹고 왔는데 대신 우유 마시면 되겠네”라며 반가워했다. 매일 우유를 한 두 잔씩 마신다는 그는 미국 수련의 시절 이 한국 우유의 맛이 무척 그리웠다고 한다.

“어릴 적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우유를 매일 마시고 자랐어요. 당시에는 냉장시설이 신통치 않아 멸균우유를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미국에 가서 수련의 생활을 4년간 했는데, 미국 우유보다 한국에서 먹었던 우유 생각이 간절하더라고요.”

미국인들의 우유 소비에 대해 묻자 그는 “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우유를 더 많이 먹는다”고 말했다. 보통 가정에서 쇼핑을 하면 1리터(파인트)보다는 1갤런(약 4리터)짜리 우유 2~3개를 구입하는데, 아침 식사로 콘플레이크나 시리얼에 타서 먹기도 하고, 늘 냉장고에 우유를 비치해 수시로 마실 수 있도록 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인요한 박사는 한국인의 경우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구르트나 치즈, 아이스크림 등 우유를 가지고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식품 등을 통해 우유를 섭취하고 건강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으로의 우유 수출, 낙농가 살길 터줄 것

“국산우유를 반대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지요. 6천 명 낙농가들은 전부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유가 잉여가 돼서 낙농·유업체가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우유 마시기 운동을 하면 돼요.”

그는 낙농업은 국가 필수산업이고 이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꼭 지켜야 될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우유를 수출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중국 사람들은 자국에서 생산한 우유를 여러 가지 이유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수출 가능성도 생각해야 해요. 중국 사람들에게 한국의 우유를 팔면 자국 우유보다 많은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구입할 겁니다. 오히려 서양에서 들여온 우유보다 거부감이 덜 할거라고 생각해요. 분명 중간에서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북한 결핵퇴치사업을 전개하는 등 인도적 북한 지원활동에도 힘쓰는 그답게 북한에 우유보내기 운동도 강조한다.

“분유, 남은 우유를 잘 가공해서 북한에 지원해주는 일은 우리민족 전체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북한에서는 장기 보관이 가능한 냉장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아이들이 우유를 못 마시는데, 분유가 됐든 우유가 됐든 북한우유지원을 통해 아이들을 살리는 운동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인요한 박사는 현재 ‘K·MILK인증’ 사업 진행상황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또 발음하기 어려운 ‘낙농’보다는 ‘K·MILK’가 좋지 않냐며 되묻기도 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 우유를 사랑하는’ 인요한 소장. 앞으로 그의 홍보대사 활동이 더욱 기대된다. 

인요한(존 린튼) 박사는?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인요한 소장은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뒤 서양인 최초로 의사고시에 합격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인요한 박사의 외증조부인 유진 벨이 1895년 한국에 선교사로 파견된 이후 이 가문은 일제의 억압과 해방, 남북분단과 한국전쟁 등 우리 근현대사의 굴곡을 5대에 걸쳐 함께하며 도움의 손길을 펼쳐왔다. 1993년 한국형 구급차를 개발해 119 응급구조체계의 산파역할을 했으며, 유진벨 재단 이사장인 친형 스티븐 린튼과 함께 북한 결핵퇴치사업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친 공로로 2005 국민훈장무련장을 받았다. 개정된 국적법에 의해 특별귀화허가를 받고 지난 해 미국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며 한국인이 되었다.

